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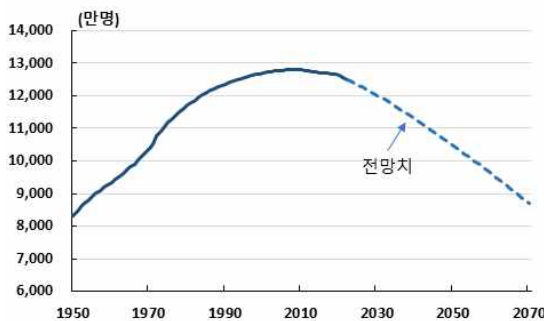
## 제 목

## 일본 인구의 도쿄권 집중 현황 및 평가

- ◆ 2000년대 들어 도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재차 심화되면서 지방 쇠퇴 및 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대
- ◆ 최근의 도쿄권 인구집중의 특징으로 ①도쿄권의 핵심지역인 도쿄23구에 유입 ②진학 및 취업을 위한 15~29세 젊은층의 도쿄권 이동 ③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유입비중을 들 수 있음
- ◆ 일본 정부의 지방활성화 및 도쿄집중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도화 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집적, 더딘 근로방식 및 고용관행 변화 등으로 당분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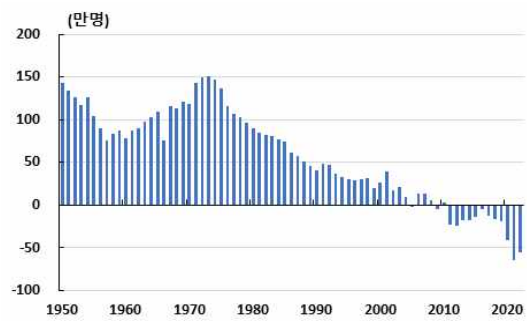
## 1. 일본인구 동향

- 일본 인구는 고도성장기(1960~70년중반) 매년 100만명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가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었으며, 2009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이어짐
  - 2022년 기준 일본 인구는 1억 2,495만명으로 2008년(1억 2,808만명) 대비 314만명 감소
  - 인구감소 초기에는 10만명대 수준의 감소폭을 보였다가 2020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50만명 수준으로 크게 확대
- 사회보장·인구문제연구소는 인구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77만명 감소하여 2050년대 중반 1억명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('23.4월)

일본 총인구<sup>1)</sup> 추이

주 : 1) 외국인 포함

일본 인구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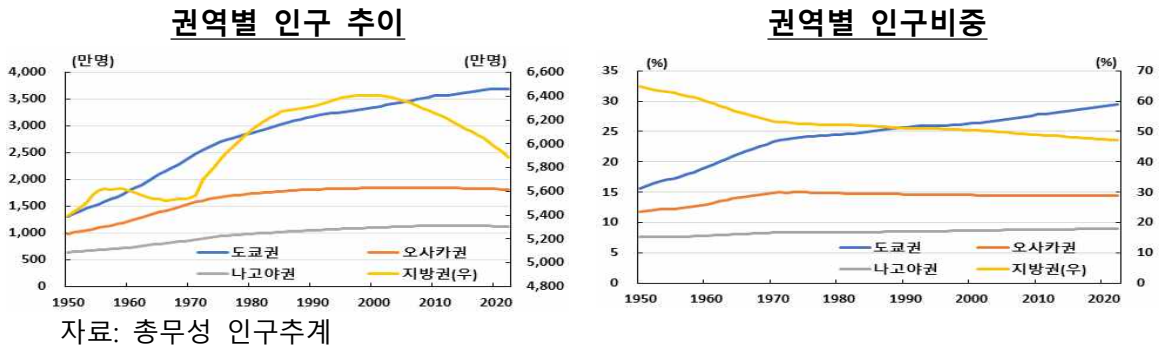
자료: 총무성 인구추계

작성자 : 동경사무소 최재혁 차장

□ 권역\*별로는 도쿄권의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도쿄권과 함께 3대도시권으로 분류되는 오사카권과 나고야권은 정체상태, 기타지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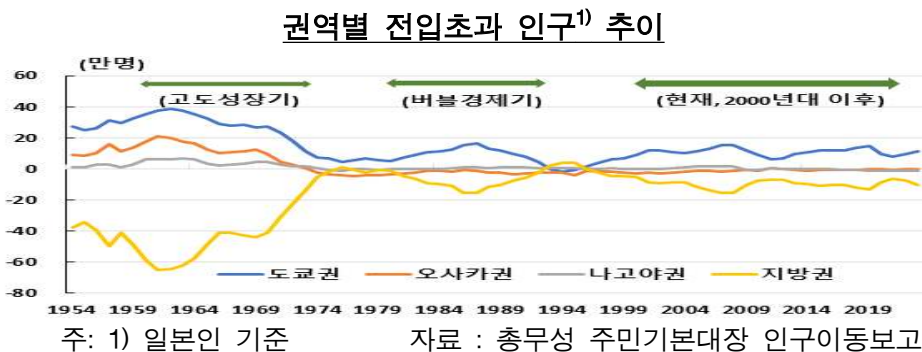
\* 47개 도도부현(都道府縣)을 3대 도시권(도쿄권, 오사카권, 나고야권)과 지방권으로 분류  
 도쿄권 : 도쿄도, 사이타마현, 카나가와현, 지바현  
 오사카권 : 오사카부, 교토부, 효고현, 나라현  
 나고야권 : 기후현, 에이치현, 미에현

- 도쿄권의 인구는 3,687만명('22년)으로 전체 인구의 29.5%를 차지하며,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'09년 이후에도 165만명 증가
- 반면 오사카권과 나고야권은 '22년 각각 1,804만명 및 1,118만명으로 '08년 대비 45만명 및 19만명 감소하였으며, 기타 지역은 5,885만명으로 동 기간 중 415만명 감소



□ 출생과 사망을 제외한 전출입 등 사회적 인구증감을 보면 1950년 이후 세 차례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발생

- 이중 첫 번째(고도성장기)는 3대도시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모두 있었던 반면 두 번째(버블경제기) 및 세 번째(2000년대이후)는 도쿄권으로의 일극집중(一極集中)이 발생
  - '60~'73년 중 연평균 29만명이 도쿄권으로 유입되었으며, '80~'92년 및 '00~'23년은 각각 연평균 10만명 및 11만명이 유입
  - 1970년대 중반 이후 오사카권과 나고야권의 인구이동은 대체로 전출입 균형이 유지



## 2. 2000년대 이후 도쿄권 인구집중의 주요 특징

### ① 최근 도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도쿄권의 핵심인 도쿄23구\*에 집중

\* 도쿄도는 도쿄도 특별구부라고 하는 도쿄23구와 다마지역(26시, 3정, 1촌) 및 도서부 등으로 구성

○ '00~'19년\* 중 도쿄권 유입인구(초과 전입인구, 외국인 제외)의 50%가 도쿄23구에 집중되었으며, '00~'09년(47%)에 비해 '10~'19년(53%)에 비중이 더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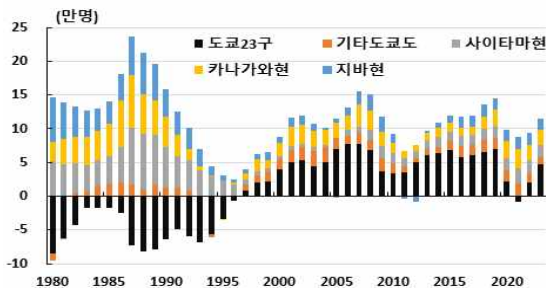
\*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'20~'22년 중에는 도쿄23구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는 전입초과 인구가 4.8만명으로 '19년(7.0만명)에는 못미치나 '20~'22년 평균(1.1만명)에 비해서는 다시 크게 확대

— 1980년대 2차 인구이동 시기에 도쿄23구의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도쿄권 주변 3현의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

— 다만 도쿄23구를 제외한 도쿄권 지역에도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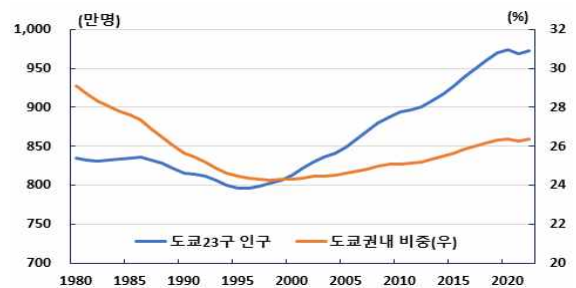
○ 도쿄23구의 인구는 972만명('22년)으로 2000년 이후 165만명(20.4%) 증가하였으며 도쿄권내 인구비중은 24.3%('99년) → 26.4%('22년)로 확대

**도쿄권 인구 전출입<sup>1)</sup> 추이**



자료: 총무성 인구이동보고

**도쿄23구 인구 추이**



자료: 총무성, 도쿄도

#### <참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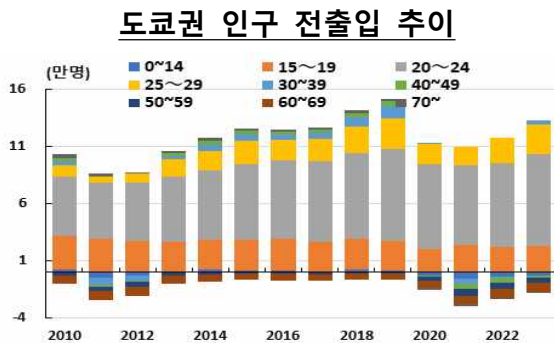
#### 우리나라 수도권과 도쿄권 비교

-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1.19만km<sup>2</sup>로 도쿄권(1.36만km<sup>2</sup>)의 88% 정도이며, 인구는 2,599만명(주민등록인구 기준)으로 도쿄권(3,687만명)의 70.5% 수준(2022년 기준)
  - 다만 총인구 대비 비중이나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 수도권이 훨씬 높는데 총인구중 비중은 수도권이 50.5%, 도쿄권은 29.5%이며 '00년 이후 인구증감률은 수도권은 19.7%, 도쿄권은 11.0% 수준
- 서울과 도쿄23구는 면적 및 인구 측면에서 규모가 매우 유사하나 인구 동향은 상이
  - 면적은 서울이 605km<sup>2</sup>, 도쿄23구가 622km<sup>2</sup>, 인구는 서울이 943만명, 도쿄23구는 972만명
  - 인구동향을 보면 서울은 2010년(1,031만명)을 고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도쿄23구 인구는 1996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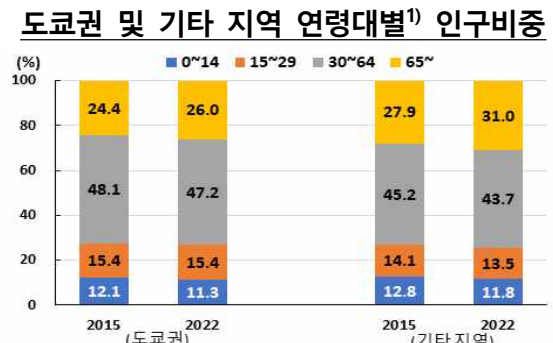
② 도교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대는 15~29세가 대부분으로, 젊은 세대가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위해 도교권으로 이동\*하는 것으로 나타남

\* 20~24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의 64.2%가 진학·취직을 위해 도교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(내각부, '젊은 층의 도교권·지방권 이동에 관한 설문조사', '19.4월)

- 2023년 도교권 유입인구 11.5만명 중 20~24세 인구는 8.1만명으로 비중은 70.4%였으며, 25~29세는 2.6만명(22.7%), 15~19세는 2.3만명(19.9%)이었음
  - 2010년 5만명 수준이었던 20~24세 인구 유입규모는 2020년대 들어 7~8만명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, 25~29세 유입규모도 2010년 1만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2만명 중반대로 증가
  - 한편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도교권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5세 연령 계급 기준 5천명 미만으로 유출규모는 크지 않음
  - 도교권의 15~29세 인구비중은 15.4%(22년)로 기타 지역(13.5%) 대비 1.9%p 높고, 고령화율(65세이상 인구비중)은 도교권이 26.0%(22년)로 여타 지역(31.0%)에 비해 5%p 낮음



자료: 총무성 인구이동보고



자료: 총무성 인구추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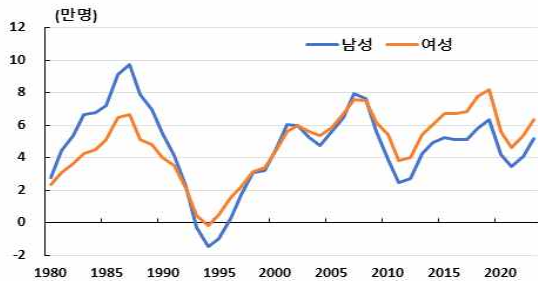
- 도교권은 대기업 본사 및 외국계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대학 및 학생수도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진학·취직 등에 상대적으로 유리
  - 자본금 10억엔 이상 기업의 권역별 비중은 도교권이 59.6%로 오사카권(13.3%), 나고야권(6.7%) 및 지방권(20.4%)에 비해 월등히 높음(경제센서스 활동조사, 2021년)
  -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교권이 86%로 대부분이 도교에 집중(동양경제신문, 국토교통성, 2019년)
  - 도교권의 대학\*수는 232개로 전국(810개)의 28.6%, 학부 학생수는 119.6만명으로 전국(294.6만명)의 40.6%(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, 2023년)

\* 특히 사립대의 도교권 집중현상이 현저한데 사립대 수는 전체의 33.6%, 학생수는 48.8%를 차지

③ 성별로는 최근 들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도쿄권 이동 현상이 두드러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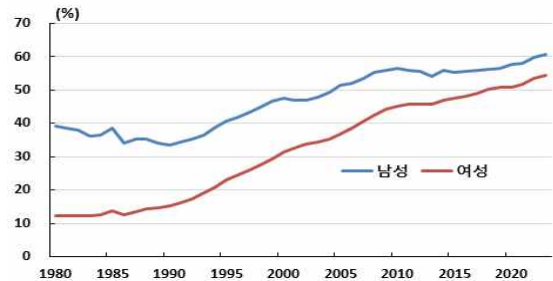
- 2009년 이후 15년 연속 여성 유입인구가 남성을 넘어선 가운데 동 기간 중 남성 유입인구는 68.2만명, 여성은 89.0만명 수준
-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90년대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2023년에는 남성과의 격차가 6.2%p로 축소(남성 60.7%, 여성 54.5%)되는 등 여성의 대학진학률 상승이 도쿄권으로의 여성인구 유입에 큰 영향
-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권역내 산업 특성 및 여성 취업비중이 높은 의료·복지, 학습서비스 등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도 중요한 요인

**성별 도쿄권 전입초과 인구 추이**



자료: 총무성 인구이동보고

**성별 대학진학률 추이**



자료: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

3. 일본 정부의 대응

□ 일본 정부는 도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이 지방쇠퇴와 더불어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, 지방 활성화 및 도쿄 일극집중 시정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응을 실시

○ 지방창생(2014년~) : 아베 정부는 2014년 「마을·사람·일 창출 종합전략」(지방창생)을 마련하고

- ①지방에서의 안정적 고용 창출 ②지방의 사람 흐름 창출(도쿄권 전입초과 시정) ③젊은 세대의 결혼·출산·육아대책 ④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 등 4 가지 목표를 설정

— 지방 일자리 창출\*, 방일 외국인 관광객 대폭 증가\*\*, 농가소득 향상\*\*\* 등 일부 경제적 성과는 있었으나, 도쿄권 전입초과는 오히려 더욱 크게 확대되고 출산율\*\*\*은 정체상태 지속

\* 모든 지역에서 2018년 기준 '14년대비 실업률은 하락하고, 유효구인배율은 상승

\*\* 외국인 숙박일수(万일) : 도쿄 '14년 1,739 → '18년 3,209, 지방 2,743 → 6,398

\*\*\* 지방 농가소득 : '14년 2.6조엔 → '18년 3.6조엔

\*\*\*\* 합계출산율 : '14년 1.42 → '18년 1.42

- **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(2023~2027년)** : 기시다 내각은 코로나19 등으로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근로방식 정착 움직임이 나타나자 **‘지방창생’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전략\***을 발표

\*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기본방침(각의결정, '22.6월)  
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(2023 개정판, 각의결정, '23.12월)

- 지방창생 전략의 기본목표 4가지는 그대로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과 구체적 목표 및 평가방법을 명기
- 도쿄집중 완화와 관련해서는 ①**도쿄권과 지방의 전출입 균형**(’27년) ② 지방공공단체 위성오피스 설치(’24년 1,000개, ’27년 1,200개) ③기업판 고향납세\* 활용 지방공공단체(’27년 1,500개) ④**관계인구\*\*** 창출확대 기여 지방공공단체(’27년 1,200개) 등이 있음

\*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창생 사업에 기업이 기부를 실시했을 경우 기부액의 최대 90%까지 법인세를 면제

\*\*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갑자기 이주·정착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우선 지방과 도시 거주자의 연결을 강화해 지방이주의 저변을 넓히려는 것으로, ‘관광객 이상·정주자 미만’을 관계인구로 설정

#### 4. 평가 및 전망

- 코로나19 등에 따른 도쿄권 인구유입 감소 등으로 도쿄집중 완화에 대한 기대가 일시적으로 부각되었으나, 지난해 다시 인구유입이 늘어나는 등 **문제해결 전망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**

- 재택근무(텔레워크)가 일반화되었으나 실시율\*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**근로방식 변화가 더디고**, 일본 특유의 **중신고용** 등에 따른 낮은 이직률도 도쿄권에서의 인구유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

\* 도쿄도내 기업(30인이상) 텔레워크 실시비율 : '21.5월 64.8% → '24.2월 41.6%

- 도쿄23구로의 인구집중 가속화는 맞벌이 일반화 등에 따른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생활방식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- 대기업, 양질의 일자리 등이 분산되지 않을 경우 도쿄권으로의 젊은 세대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, 근로방식과 고용관행의 변화가 없이 중장년 세대의 지방 이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

-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우위 및 편리한 교통 등으로 노년층도 도쿄권에 남으려는 유인이 작지 않음

- 향후 도쿄권에 고령인구 비중 확대 등으로 의료요양 수요가 늘어날 경우 요양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으로 도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